기획 연재

孝와 烈에 관한 瞑想 ⑲

權 五 焄
本紙편집인

251. 왕밀역제王密易弟

왕밀王密은 중국 진晋나라 때 상군上郡 사람인데 일찍이 그 아우 준儁과 아들 원직元直과 더불어 양주凉州로 가던 도중 식량이 떨어졌다. 밀이 준과 원직을 길에 머물러 두고 민간에 들어가 밥을 구걸해 가지고는 돌아와 보니 준은 도적에게 겁략되어 있고 원직은 달아나 숨어 있었다. 밀이 원직을 찾아 데리고 도적을 쫓아가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기를 ‘ 사람의 정리로야 모두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다만 이 아우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비가 죽은지라 유복자遺腹子로 가련하게 자라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제 자식 원직으로 아우 준을 대신케 해 주소서 ’ 하였다. 그러자 도적이 서로 말하기를 ‘ 자식을 주고 아우와 바꾸는 것은 의리의 큰 것이다 ’ 하더니 드디어 준과 원직을 다 밀에게 주어 데리고 가게 하였다.

뒤에 밀이 죽으니 아우 준이 닷새 동안 한 구기의 물도 입에 넣지 않고 비록 복상服喪은 법도대로 기년期年을 하였으나 심상心喪은 6년 동안 하였다.

제목 왕밀역제王密易弟는 왕밀이 아우와 (자식을) 바꾸었다는 뜻이다. 이 또한 세상에 기근이 든 고대 중국대륙에서 도적이 사람을 사냥하듯 잡아다 먹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복상服喪은 사람이 죽어 상복을 입고 상제喪制로서 금욕근신하고 지내는 것을 말한다. 기년期年은 제돌 한 해를 말하는데 만 1년 열두 달에 한 달이 더한 13월이 된다. 심상心喪은 마음속으로 복상을 하는 것으로서 상복은 기한이 다해 벗었거나 유복친有服親이 아니어서 입지 않았더라도 실제 행동은 상제와 똑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도출양주걸개귀道出凉州乞] 歸 : 양주로 가는 도중에 음식을 구걸해 돌아오니

선문아제적중위旋聞阿弟賊中圍 : 문득 제 아우가 도적에게 사로잡혔다 하네

장아환제진정절將兒換弟眞情切 : 아이를 데리고 가 아우와 바꾸려니 정리가 참으로 절실한데

도적무지역해비盜賊無知亦解悲 : 도적이 무지해도 또한 슬픔을 풀어주네

망친유복지사인亡親遺腹只斯人 : 돌아간 부친 유복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상애상련약일신相愛相憐若一身 : 서로 사랑하고 연민하기 한몸과 같았는데

구보오아기오제苟保吾兒棄吾弟 : 구태여 내 아이 보전하고자 내 아우를 버리고서

구천하이알오친九泉何以謁吾親 : 지하에 가서 어찌 어버이를 뵈오리오

252. 채확자사蔡廓咨事

채확蔡廓은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 송宋나라 제양濟陽 사람인데 그 형 궤軌를 받들기를 아버지같이 하여 집안 일의 크고 작은 것을 모두 자문諮問한 다음에야 행하였다. 벼슬에 나가서는 공록公祿이나 상으로 받는 것을 모두 형 궤에게 납입시킨 다음 쓸 데가 있을라치면 반드시 그것을 맡아 다스리는 자에게 청하여 받아다 쓰도록 하였다. 그가 고조高祖(남조송南朝宋 무제武帝 유유劉裕, 재위 420 422)를 좇아 팽성彭城에 나갔을 때 그 아내 치씨 氏가 편지를 하여 여름 옷을 구하니 확이 답서하기를 ‘ 여름 옷은 헤아려 응당 맡아 공급하는 이가 스스로 살펴 주선할 터이니 별도로 보낼 것이 없다 ’ 하였다.

제목 채확자사蔡廓咨事는 채확이 일을 품의했다는 뜻이다. 남조송南朝宋은 유유劉裕가 진晋을 이어 황제를 칭하여 유송劉宋이라 일컫기도 하며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인 건강建康에 도읍하고 8황제 60년 만에 남조 제齊에게 망했다. 역년은 서기 420 479년이다. 고조高祖 유유劉裕는 남조송 창업주로 자字는 덕여德輿, 소자小字는 기노寄奴이고 시호는 무제武帝인데 진晋의 안제安帝 때 손은孫恩、노순盧循 등의 반란을 평정하고 하비태수下뵉太守가 되었으며 환현桓玄을 공파하여 빼앗긴 안제의 제위를 회복시켰다. 이어 남연南燕과 후진後秦을 멸망시킨 공으로 송공宋公에 봉해지고 진의 공제恭帝에게서 선위받아 송을 개국했다. 재위는 420 422 3년이고 연호는 영초永初라 했다. 일화의 주인공 채확蔡廓은 제양의 고성考城 사람으로 자는 자도子度이고 채모蔡謨라는 사람의 증손자이다. 무제 유유가 연주자사찐州刺史로 있을 때 그 휘하의 별가종사사 別駕從事史로 있었고 뒤에 남조송이 개국하자 예장태수豫章太守를 거쳐 이부상서吏部尙書와 사부상서祠部尙書 등을 지내기에 이르렀으며 그 사적이 송서宋書에 기록되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봉형여부경무위奉兄如父敬無違 : 형 받들기 아비와 같이 하여 공경으로 어긋남 없고

가유존엄숙감사家有尊嚴孰敢私 : 집안에 존장이 엄숙하니 뉘 감히 사사로이 하리오

녹사진응귀일실祿賜盡應歸一室 : 봉록과 하사받은 것 응당 집으로 모두 돌리고

사무전제필선자事無專制必先咨 : 마음대로 전결하는 일 없이 반드시 먼저 품의드렸네

호종군왕고미회扈從君王苦未回 : 임금을 호종하며 고생하느라 돌아오지 못하니

처구하복기서래妻求夏服寄書來 : 아내가 여름옷을 구해 편지를 보냈는데

계급지언존전자計給只言存典者 : 맡은 자가 헤아려 공급한다는 한마디 뿐

초무사의오영대稍無私意汚靈臺 : 사사로운 뜻으로 조금도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네

↘ 수 있는 권한을 주고서 서방 제후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주는 비중費中과 오래惡來를 등용하여 국정을 맡겼으나 사리사욕을 채우니 제후는 은나라와 더욱 멀어졌다. 서백은 주周(서백이 관할하던 제후국)로 귀국하여 음덕을 베풀고 선정을 행하니 많은 제후가 주왕를 등지고 서백을 추종하였다. 서백의 세력은 강해지고 주의 위세는 점차 줄어드니 왕자 비간比干(주紂의 서형庶兄, 미자微子、기자箕子와 함께 은의 삼인三仁으로 불림)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 서백이 세상을 떠나고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이 동쪽 지방을 정벌하여 맹진盟津(하남성 맹진현)에 이르자 은나라를 저버리고 주나라로 모여든 제후가 800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이 주紂를 정벌하자고 제의하자 무왕은 천명을 모른다고 하고 다시 돌아갔다. 주왕이 갈수록 음란해지자 서형庶兄 미자계微子啓는 몇 번이나 간언해도 주왕이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은나라를 떠났다. 비간은 ‘ 신하는 죽더라도 임금께 충간忠諫해야 한다 ’면서 계속 주왕에게 간언하니 주왕이 진노하여 ‘ 성인聖人의 심장에는 구멍이 일곱 개나 있다고 들었다 ’며 비간을 해부하여 심장을 꺼내보았다. 기자箕子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미친 척하여 남의 노비가 되고자 하였으나 주왕이 잡아 가두었다. 대신 태사太師와 소사少師는 제기祭器와 악기樂器을 가지고 주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마침내 주나라의 무왕이 제후를 거느리고 주왕을 정벌하니 주왕도 군대를 일으켜 목야牧野(지금의 하남성 기현으로 은나라 도성 남쪽 교외 70리 밖)에서 대항하였으나 갑자일甲子日에 패하여 성으로 도망쳐 들어와 녹대로 올라가서 보옥寶玉으로 장식한 옷을 뒤집어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무왕은 주왕의 목을 베어 대백기大白旗(행군할 때의 지휘용 큰 기)에 매달았고, 달기도 처형하였다. 상나라가 멸망한 이후 백성은 군주를 제帝라고 부르지 않고 왕王으로 낮추어 불렀다. 주나라 무왕이 붕하자 무경武庚、관숙管叔、채숙蔡叔이 난을 일으켰고, 성왕成王은 주공周公을 시켜서 그들을 토벌하였으며, 주왕의 이복형 미자계微子啓(미微는 봉지의 이름으로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노성현潞城縣 동쪽이고, 자子는 작위爵位의 이름이고, 계啓는 그의 이름이다)를 송宋에 봉하여 은의 후대를 잇도록 하였다. 주紂는 하夏나라의 걸桀과 함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폭군으로 불리며, 두 사람을 합하여 걸주桀紂라 한다. ◎서기恕己: 자기의 인애하는 마음을 확충하여 남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

09-05. 故治國在齊其家 。

通結上文。

09-05. 고치국재제기가 。

통결상문。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자기의 집안을 잘 관리하는 것에 달려 있다.

앞글의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지었다.

09-06. 詩云:「桃之夭夭, 其葉 , 之子于歸, 宜其家人 」宜其家人, 而后可以敎國人 。

夭, 平聲。 , 音臻。◎詩, 周南桃夭之篇。夭夭, 少好貌。 , 美盛貌。興也。之子, 猶言是子, 此指女子之嫁者而言也。婦人謂嫁曰歸。宜, 猶善也。

09-06. 시운:「도지요요, 기엽진진, 지자우귀, 의기가인 」의기가인, 이후가이교국인 。

요, 평성。진, 음진。◎시, 주남도요지편。요요, 소호모。진진, 미성모。흥야。지자, 유언시자, 차지여자지가자이언야。부인위가왈귀。의, 유선야。

《시경》에 말하였다.「싱싱하고 아름다운 복숭아꽃이여, 그 잎사귀 아름답고 무성하구나! 이 낭자 시집간다니 그 집안사람을 화목하게 하리라.」집안사람을 화목하게 한 다음에 나라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

요夭는 평성平聲이다. 진 은 음이 진臻이다. ◎시詩는 《시경》의 〈주남周南╳도요桃夭〉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요요夭夭는 젊고 아름다운 모양이다. 진진 은 아름다움이 왕성한 모양이다. 시의 여섯 분야인 육의六義의 흥興에 속한다. 지자之子는 이 사람이라는 말과 같고, 이것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인婦人이 시집가는 것을 일컬어 귀歸라 한다. 의宜는 좋은 일하는 것과 같다.

야옹野翁공의 향사일 변경안내

안동권씨 복야공파 판서공계 야옹공野翁公(20世 휘)의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묘소 세사일歲事日이 2009년 11월 23일(음 10월 7일) 결의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자손여러분은 2010년 가을 향사부터 이를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문중의 대표에게 문의하고 널리 알려 향사에 많은 자손이 참반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향사일 : 음력 10월 7일
변경후 향사일 : 양력 11월 첫째 일요일

연락처 장방(審己)계 연락처 : 권혁기 054-672-5776 (봉화)
차방(審言)계 연락처 : 권재우 054-655-9335 (예천맛질)
권재종 011-9750-4855 (서울)
삼방(審問)계 연락처 : 권달용 055-973-0924 (산청)
사방(審思)계 연락처 : 권상봉 054-653-9394 (예천)
오방(審辨)계 연락처 : 권영진 010-2309-0922 (영주)
육방(審行)계 연락처 : 권영근 054-859-5530 (안동, 도촌)
칠방(審止)계 연락처 : 권오철 054-821-2004 (안동)

안동권씨야옹공종중 2010년 도유사 權大永